

AUTHOR 박건택 (Gon Taik Park)

TITLE 로마서 13:1-7 해석에 나타난 어거스틴과 칼빈  
의 교회와 국가 사상

(Augustine of Hippo and John Calvin about  
Church and State in their Interpretations  
of Romans 13:1-7)

IN 신학지남(Presbyterian Theological Quarterly)  
vol.71 no.4 (Winter, 2004):162-187

## 로마서 13:1-7 해석에 나타난 어거스틴<sup>1)</sup>과 칼빈<sup>2)</sup>의 교회와 국가 사상

안 인 섭  
(역사신학)

- I. 들어가는 글
- II. 어거스틴 연구와 칼빈 연구의 새 방향 : 교회의 신학자
  - 1. 새롭게 발견된 어거스틴의 편지
  - 2. 새롭게 발견된 어거스틴의 설교문
  - 3. 16세기 역사 연구와 칼빈
  - 4. 칼빈 연구의 새 방향 : 역사적 접근과 성경 주석 연구의 병행

- III. 어거스틴과 칼빈의 비교 연구
  - 1. 어거스틴 연구와 칼빈
  - 2. 칼빈 연구와 어거스틴
- IV. 로마서 13:1-7 해석의 비교
  - 1. 어거스틴의 로마서 13:1-7 해석
  - 2. 칼빈의 로마서 13:1-7 해석
- V. 비교 및 맺는 글

### I. 들어가는 글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세계는 종교적인 신념으로 무장된 신정국가주의를 신봉하는 단체들의 실제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역사적으로 그 어느 시대보다 불안한 상황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거대 국가들이 주도하는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약소국가들은 부단히 그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의 경우 식민지 피지배와 분단시대로 요약되는 20세기를 거

친 후, 새로운 세기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그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하여 진통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3)</sup>

전술한 21세기의 역동적인 배경 속에서, 개혁신학은 이 시대와 교회앞에 무엇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역사적 질문이 제기될 때마다, 교회사적으로는, 번잡한 시대적 정황에 위치했던 역사적 교회는 어떻게 그 문제의 해결을 모색해 왔는지를 탐

- 1) 어거스틴 연구를 위해서 활용되는 라틴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1) *Corpus scriptorum ecclesiasticorum latinorum (=CSEL)*. Vienna: Academia Litterarum Caesareae Vindobonensis, 1866 ff. (2) *Corpus Christianorum, Series Latina (=CCL)*. Turnholti, Typographi Brepols, 1953 ff. (3) *Patrologia Latina Cursus Completus (=PL)*, ed. J.-P. Migne, 221 vols. Paris: Vives, 1844-55. (4) Dolbeau F. ed. *Augustin D'Hippone: Vingt-six sermons au people d'afrique* (Paris: Institut d'Etudes Augustiniennes, 1996). 영어 번역본들은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다. (1) *A Select Library of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ed. Philip Schaff and Henry Wace, First Series, vol 1-8. New York: Christian Literature Co., 1886-1900. Reprinted.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1999. (2) *The Works of Saint Augustine: A Translation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New City Press, 1990 ff. (3) *The Fathers of the Church*. Washington, DC: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47 ff.
- 2) 칼빈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라틴 도서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Ioannis Calvin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s. G. Baum, E. Cunits and E. Reuss, 59 vols. Corpus Reformatorum 29-88. Brunswick and Berlin, 1863-1900. (2) *Joannis Calvin Opera Selecta*, eds. P. Barth & G. Niesel, 5 vols. Mnchen, 1926. (3) *Ioannis Calvin Opera Exegetica*, Vol. XIII. *Commentarius in Epistolam Pauli ad Romanos*, eds. T.H.L. Parker and D.C. Parker. Geneve, 1999. 영어로번역된 칼빈 작품들도 있다. (1)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ed. J.T. McNeill, trans. F.L. Battles,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20-21, 2 vol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2)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36), trans. and annot. F.L. Battles, rev. ed. Grand Rapids, Mich.: Eerdmans, 1986. (3) *Calvin's Commentary on Seneca's De Clementia*, trans., intro. and notes by F. L. Battles and A. M. Hugo, Leiden: E.J. Brill, 1969. (4) *Commentaries of John Calvin*, 46 vols. Edinburgh: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44-55; repr. Grand Rapids, Mich.: Baker Book House, 1998. (5) *Concerning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trans. J. K. S. Rei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7 등.
- 3) 1945년부터 2000년까지의 한국 역사를, 칼빈주의적 전제를 가지고, 통일사관에 입각해서 고찰한 필자의 논문을 참조하라. 안인섭, "A development of the Viewpoint of the Presbyterian Churches of South Korea toward North Korea," (네덜란드 캠펜신학대학교 개교 1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2004), pp. 1-19.

구하게 된다. 이때 개혁 교회는 그 신학적 근원이 되는 어거스틴과 칼빈의 신학, 특별히 그들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 연구에 초점을 모으게 된다. 교회의 지도자였던 어거스틴과 칼빈은 그들이 섬겼던 교회가 치해 있었던 시대들의 특징에 있어서 상호간에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다. 어거스틴은 당시로서는 세계 그 자체였고 영원한 기독교 제국으로 신뢰되었던 로마가 몰락하는 대 격동기에 교회를 섬기고 있었으며, 칼빈은 중세 기독교 천 년의 운명이 해체되면서 유럽이 전혀 새로운 근대 사회로 재편되어 가던 16세기라고 하는 대 격변기에 신학을 전개했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고전적인 성경의 가르침인 로마서 13장 1-7절에 대한 어거스틴과 칼빈의 해석을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거스틴과 칼빈이 견지하고 있는 성경해석학 이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그들의 성경 해석학에 대한 현대 신학자들의 이론들을 탐구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어거스틴과 칼빈 자신은 로마서 13장 1-7을 각각 어떻게 해석해 내었는가라는 그들의 실제적 성경해석 자체에 집중될 것이다. 특별히 이 두 신학자들이 각각의 인생 여정과 그들이 봉직했던 교회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다양하게 자신들의 작품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들의 로마서 13장 해석을 분석하고 비교하는 작업은, 그들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신학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심화되었는가를 도출하여 비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한 탐구가 될 것이다.

## II. 어거스틴 연구와 칼빈 연구의 새 방향: 교회의 신학자

### 1. 새롭게 발견된 어거스틴의 편지

어거스틴 학계는 지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새롭고 놀라운 두 가지의 역사적 성과물을 접할 수 있었다. 어거스틴의 편지들과 설교문들이 각각 새롭게 발견되어 편찬된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역사 신학자들은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어거스틴의 모습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대학 교수인 요한네스 디프약은 프랑스 Marseilles에

있는 Bibliothéque Municipale에서 어거스틴의 필사본들을 카탈로그화 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까지는 전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문서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26편의 어거스틴의 편지들과 제롬에 의해서 기록된 한 개의 편지였다.<sup>4)</sup> 디프약 교수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되어 1980년대에 출판된 이 “디프약 편지”들은 특별히 황혼기의 어거스틴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새로운 편지들이 강조해 주는 어거스틴의 모습은 후기 로마 시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목회를 담당하는 전형적인 교회의 신학자이다.<sup>5)</sup>

### 2. 새롭게 발견된 어거스틴의 설교문

유사한 사건이 1990년대에 돌보(François Dolbeau)에 의해서 독일에서 또 한번 발생했다. 돌보는 당시 독일의 마인츠(Mainz) 사립 도서관(Municipal Library)에서 필사본들을 새로 목록화 하는 작업 중이었는데, 그 때까지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고 있었던 26편이나 되는 어거스틴의 설교문들을 새로 발견한 것이다. 대부분의 설교들은 397년에서 416년 사이에 행해진 것이었다.<sup>6)</sup> 돌보가 발견한 어거스틴의 설교문들은 1990년대에 편찬되었는데 이 설교문들을 통해서 어거스틴의 생생한 초상화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묘사해 주는 어거스틴의 상은, 로마 제국 말기에 북아프리카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던 교회의 지도자였다. 그러므로 디프약의 편지와 돌보의 설교문의 새로운 발견은 어거스틴의 신학과 목회의 무대가 되는 당시의 역사를 더 관심

4) Ed. J. Divjak, CSEL 88 (Vienna: Tempsky 1981). 영어로 번역되었다. R.B. Eno, *Saint Augustine, Letters VI (1-29)*. Fathers of the Church Vol. 81 (Washington, DC: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89). 어거스틴의 새로 발견된 편지, 즉 디프약 편지는, 각 번호 앞에 별표(\*)로 표시함으로 기존의 어거스틴의 편지와 구별시킨다.

5) P.R.L. Brown, *Augustine of Hippo: A Biography*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2000), pp. 441-473.

6) F. Dolbeau (ed.), *Augustin D'Hippone: Vingt-six sermons au peuple d'afrique* (Paris: Institut d'Etudes Augustiniennes, 1996). 영어 번역본이 있다. F. Dolbeau, *Sermons: Newly Discovered Sermons* (New York: New City Press, 1998) [The Works of Saint Augustine: A Translation for the 21st Century].

을 갖고 연구하도록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 3. 16세기 역사 연구와 칼빈

네덜란드 역사학자로 독일과 미국에서 활동했던 오버만(H.A. Oberman)에 의하면 칼빈은 박해의 위협이라는 역사적 상황속에서 살아갔던 실제적인 한 명의 난민이었으며,<sup>7)</sup> 그가 프랑스에서 추방되었던 경험은 그의 사상 형성에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sup>8)</sup> 이처럼 칼빈의 역사적 경험과 그의 사상이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서 고찰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칼빈을 16세기의 역사적 문화사적 문맥과, 프랑스와 제네바의 사회적 종교적 상황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칼빈에 대한 재 발견이 광범위하게 시도되고 있다.<sup>9)</sup> 특히 칼빈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신학 연구는 의미심장하게 다루어져 왔다.<sup>10)</sup>

한편 칼빈은 중간에 스트拉斯부르그에서 목회를 했던 1538년에서 1541년 까지의 3년을 빼고는, 1536년부터 1564년 세상을 떠나기까지, 제네바에서 목회하며 사역을 감당했다. 그러므로 그의 시대 제네바 콘시스터리 자료를 고찰

7) H.A. Oberman, "Initia Calvinii: The Matrix of Calvin's Reformation," in *Calvinus Sacrae Scripturae Professor: Calvin as Confessor of Holy Scripture*, (ed.) W.H. Neuser (Grands Rapids: Eerdmans Publishing, 1994), pp. 113-154.

8) H.A. Oberman, "The Pursuit of Happiness," in *Humanity and Divinity in Renaissance and Reformation: Essays in Honor of Charles Trinkaus* (Leiden: E.J. Brill, 1993), pp. 266, 274.

9) W.J. Bouwsma, *John Calvin: A Sixteenth Century Portrait* (New York/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오버만의 다음 논문들은 칼빈이 중세 전통을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설명해 준다. H.A. Oberman, "Extra Dimension in the Theology of Calvin," in *The Dawn of the Reformation: Essays in Late Medieval and Early Reformation Thought*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rep. 1992), pp. 234-258 그리고 *De Erfenis van Calvijn: Grootheid en Grenzen* (Kampen: Kok, 1988), pp. 26-28.

10) R.C. Gamble, "Current Trends in Calvin Research, 1982-90," in *Calvinus Sacrae Scripturae Professor: Calvin as Confessor of Holy Scripture*, (ed.) W.H. Neuser (Grands Rapids: Eerdmans Publishing, 1994), pp. 92-93. "칼빈의 제네바의 교회/국가관계는 끊임없는 토론의 주제가 되어왔다."

하는 것은, 제네바에서 활동하던 칼빈의 교회-국가 관계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sup>11)</sup>

### 4. 칼빈 연구의 새 방향 : 역사적 접근과 성경 주석 연구의 병행

앞으로의 칼빈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더글라스 (J.D. Douglass)는 최근에 다음의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sup>12)</sup> 이 제언에 의하면, 첫째, 칼빈의 사역과 사상의 무대가 되는 "사회적 문맥"이 연구되어야 한다. 실제로 칼빈이야 말로 중세 말, 근세 초라는 종교개혁시대의 역사적 특색을 담지하고 있는 시대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칼빈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를 위해서 칼빈의 주석들, 설교문들, 그리고 서간문 등의 연구를 촉구하고 있다. 셋째로, "청년 칼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종교개혁 가로 자신의 신학과 사상이 정형화 되어가고 있었던 그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할 때, 칼빈 사상의 성숙 과정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넷째로, 성경해석학과, 주석사라는 차원에서 칼빈에 대한 연구가 더 요구된다. 칼빈은 평생 설교하고 성경공부를 인도했으며 주석을 저술했던 교회의 신학자였다. 그러므로 그의 성경해석학에 대한 연구는 칼빈의 정체성을 잘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다. 실제로 칼빈의 생애와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주석들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의 성경 주석들은 필요한 방대한 자

11) 예를 들어, R.M. Kingdon (ed.), *Registers of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vol 1:1542-1544* (trans.) M.W. McDonald (Grand Rapids: Eerdmans, 2000), 그리고 R.M. Kingdon, *Adultery and Divorce in Calvin's Genev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 W.G. Naphy, "Calvin and State in Calvin's Geneva," *Calvin and the Church*, Calvin Studies Society Papers (2001), pp. 13-28; W.G. Naphy, *Calvin and the Consolidation of the Genevan Reformation* (Manchester and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4).

12) J.D. Douglass, "Pastor and Teacher of the Refugees: Calvin in the Work of Heiko A. Oberman," in *The Work of Heiko A. Oberman: Paper from the Symposium on His Seventieth Birthday*, (eds.) T.A. Brady, Jr., K.G. Brady, S. Karant-Nunn and J.D. Tracy (Leiden: Brill, 2003), pp. 63-65.

료들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sup>13)</sup>

### III. 어거스틴과 칼빈의 비교 연구<sup>14)</sup>

칼빈의 사상을, 교부 특히 어거스틴과 관련해서 연구하려는 시도들은 지금 까지 지속되어 왔는데,<sup>15)</sup>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어거스틴과 칼빈의 예정론을 비교 연구하는 일이다.<sup>16)</sup> 그러나 이 연구 목록들이 보여주는 것은, 어거스틴과 칼빈을 교회와 국가의 관계 사상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한 경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sup>17)</sup> 칼빈을 어거스틴과의 관계 속에서 연구하는 작업은 지속되어야 하는데,<sup>18)</sup> 특히 오르트(J. van Oort)는 앞으로 더욱 진행되어야 할 어거스틴과 칼빈의 비교 연구의 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3) H. Selderhuis, *God in het midden: Calvijns theologie van de Psalmen* (Kampen: Kok, 2000), pp. 23-48.

14) 어거스틴과 칼빈을 비교 연구하기 위한 방법론을 위해서는 다음을 보라. 안인섭, “칼빈과 어거스틴: 그 비교 연구의 한 방법론과 실제,” (*한국칼빈학회 논문 발표회*, 2004), pp. 1-13.

15) 어거스틴을 비롯한 교부와 관련시켜서 진행한 칼빈 연구들의 목록은 다음에서 참조하라. 안인섭, “어거스틴과 칼빈: 신국론과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 사상 비교,” *한국복음주의 역사신학회 제9회 논문발표 논집* (천안대학교, 2004), pp. 28-29의 각주 113.

16) 예를 들어, A.D.R. Polman, *De Praedestinatieleer van Augustinus, Thomas van Aquino en Calvijn* (Franeker: Wever, 1936); J.M.J. Lange van Ravenswaaij, *Augustinus totus noster: Das Augustinverständnis bei Johannes Calvi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0); H. Davies, *The Vigilant God: Providence in the Thoughts of Augustine, Aquinas, Calvin and Barth* (New York etc.: Peter Lang, 1992).

17) 최근에 어거스틴의 신국론과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사상을 비교 연구한 다음의 논고를 보라. 안인섭, “어거스틴과 칼빈: 신국론과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 사상 비교,” *한국복음주의 역사신학회 제9회 논문발표 논집* (천안대학교, 2004), pp. 28-43.

18) J. van Oort, “John Calvin and the Church Fathers,” in *The Reception of the Church Fathers in the West: From the Carolingians to the Maurists*, (ed.) I. Backus (Leiden/New York/Kln: E.J. Brill, 1997), vol. 2, p. 661.

칼빈의 어거스틴 이해에 대해서는 보다 많고 광범위한 연구들이 더 진행되어야만 하는데, 단지 예정론뿐 아니라, 성례론, 원죄론, 역사관, 교회론, 그리고 예컨대 일반론적인 금욕주의와 어거스틴의 수도원 주의에 대한 평가이다.<sup>19)</sup>

그러므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칼빈과 어거스틴을 비교 연구하는 본 논문은,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한, 그래서 앞으로의 연구가 더욱 요청되는 분야를 향한, 한 시도라고 말할 수 있다.

#### 1. 어거스틴 연구와 칼빈

어거스틴과 칼빈은 서로 비교 연구될 때 각자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먼저 어거스틴을 연구하는 것이 왜 칼빈의 신학과 사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16세기를 살아가면서 활동했던 역사적 칼빈의 사상이 형성되고 발전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가 자란 시대의 지성사적,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어거스틴 이해가 중요하다. 중세 말과 종교개혁 시대의 초기에 전 유럽에는 어거스틴 르네상스가 풍미한다.<sup>20)</sup> 칼빈은 이런 지적 분위기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의 사상은 중세 후기의 신학적 토양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이런 지적 문맥에서 칼빈은 어거스틴의 사상을 만나서 큰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둘째, 칼빈의 작품들 속에 나타난 어거스틴 인용과 어거스틴 사상의 영향을 연구할 때, 칼빈 사상의 중심부에 어거스틴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

19) J. van Oort, “Calvijn en Augustinus,” *Nederlands archief voor Kerkgeschiedenis* 72-1 (1992), p. 103.

20) H.A. Oberman, *The Dawn of the Reformation: Essays in Late Medieval and Early Reformation Thought*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rep. 1992), pp. 8-12. 맥그레스에 의하면, 칼빈은 1520년대에 파리에 있는 Collège de Montaigu에서 공부를 했으며, 새로운 길(via moderna)의 중심지였던 그곳에서 아마도 후기 중세 어거스틴주의(late Mediaeval Augustinianism)를 만났을 가능성이 크다. A.E. McGrath, *Reformation Thought: An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1999), pp. 80-3.

므로, 어거스틴 연구는 칼빈 이해에 중요한 빛을 비춰줄 것이다.<sup>21)</sup> 칼빈이 어거스틴에게 가장 많이 호소했던 이유는,<sup>22)</sup> 어거스틴을 “가장 순수하고 원시적인 교회”的 신학자로 보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칼빈은 종교개혁의 교회운동 이야기로, 교부 시대의 역사적 기독교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변하기 위해서 어거스틴을 가장 많이 인용했다.<sup>23)</sup> 칼빈은 우로는 16세기 로마 카톨릭 교회와, 좌로는 급진적인 재세례파들과의 투쟁속에서, 어거스틴의 작품들과 어거스틴의 권위에 호소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성숙시켰다.

이런 배경을 고려한다면, 어거스틴에 대한 이해는 칼빈의 사상을 해석하는데 매우 긴요한 조건임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칼빈은 어거스틴 수용자였다고 평가될 수 있으며, 따라서 칼빈과 어거스틴의 비교 연구는 칼빈 이해를 위한 보다 심도깊은 통찰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어거스틴에 대한 연구, 특별히 어거스틴과 칼빈의 비교 연구는, 칼빈의 신학적 근거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 2. 칼빈 연구와 어거스틴

비록 모든 사상을 전적으로 수용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칼빈은 어거스틴을 충실히 따랐던 신학자임에는 틀림없다. 어거스틴 사상의 담지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을 어거스틴과의 관련속에서 심도있게 연구할 때, 역으로 칼빈 연구는 어거스틴을 폭넓게 이해하는데 큰 유익을 주게 될 것이다

21) 어거스틴의 칼빈 수용에 대한 연구의 한 예로서, 다음의 논문을 들 수 있다. 안인섭, *Calvin's Reception of Augustine's Ideas on Church and State*, (drs. Thesis) (Kampen: Theological University of the Reformed Churches in the Netherlands in Kampen, 1999).

22) R.J. Mooi, *Het kerk - en Dogmehistorisch Element in de Werken van Johannes Calvin* (Wageningen: H. Veenman & Zonen N.V., 1965), pp. 384-391.

23) A.N.S. Lane, “Calvin's use of the Fathers and the Medieval,” *Calvin Theological Journal* 16 (1981), pp. 160-162, 171-173, 그리고 189-190. 다음을 참조하라. J. van Oort, “Calvinus patristicus: Calvijnse kennis, gebruik en misbruik van de patres,” in *De Kerkvaders in Reformatie en Nadere Reformatie*, (red.) J. van Oort (Zoetermeer: Boekencentrum, 1997), p. 69.

다. 칼빈은 “어거스틴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Augustine … totus noster)”이라고 극찬하면서 이 교부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칼빈을 어거스틴과 비교해서 연구하는 작업은 어거스틴 신학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칼빈 신학의 기원과 형성, 그리고 그 전개에 대한 깊은 이해는, 곧 어거스틴의 사상이 후대에 어떻게 해석되고 사용될 수 있는지를 제시해 준다. 더 확대하자면, 어거스틴의 사상이 후대 그의 제자에 의해서 어떻게 심화되고 강화될 수 있는지 소위 “After Augustine”的 중요한 한 예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어거스틴과 칼빈의 사상을 비교 연구하는 중에, 서로 상이한 특징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바로 어거스틴의 고유한 신학적 특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칼빈 연구는 어거스틴 사상과 그 발전 방향성과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어거스틴 이해에 큰 유익을 주게 될 것이다.

## IV. 로마서 13:1-7 해석의 비교

주지하는 바처럼 로마서 13장 1장-7장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기독교 사상을 가장 명확하게 천명해 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어거스틴과 칼빈 자신이 이 텍스트를 각각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고찰함으로, 이 두 신학자들의 교회와 국가에 대한 사상을 비교하도록 할 것이다.

### 1. 어거스틴의 로마서 13:1-7 해석

#### 1) 국가 권력의 근원

어거스틴의 로마서 13장 1절-7절 해석을 고찰할 때,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강조점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근원적인 권위도 없다는 것이다.<sup>24)</sup> 이것은 국가

24) Augustine, Ep. 93, 6, 20; Ep. 100, 1, 1; *Reply to Faustus the Manichaean*, 22, 75; *Nature of Good, Against the Manichaeans*, 32; *The Letters of Petilian*, *The Donatist*, 2, 31, 70, *On the Gospel of St. John*, 104, 37.

권력과 위정자에 대한 그의 태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국가의 권력은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 국가의 권위에 저항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규례를 거스르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국가의 지도자들은 악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다.<sup>25)</sup> 어거스틴은 심지어 아프리카 교회가 지상의 권력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때, 그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까지 언급하기도 했다.<sup>26)</sup> 모든 지배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 지상의 권위에 복종해야만 한다.<sup>27)</sup> 이런 맥락에서 설령 해를 끼치는 국가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어거스틴은 설명하고 있다.<sup>28)</sup> 어거스틴에 의하면 국가 권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다.<sup>29)</sup>

## 2) 위정자에 대한 복종

어거스틴은 “모든 마땅한 세금은 지불되어야만 한다”면서, 조세를 받기에 마땅한 사람에게 조세를 바치며, 공조를 받아야 하는 자들에게 공조를 지불해야만 하고, 또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하며, 존경해야 할 자를 존경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30)</sup> 그에게 있어서, 천상의 예루살렘에 속한 시민들도 이 세상의 왕들을 섬겨야만 하는 것이다.<sup>31)</sup>

이런 의미에서 어거스틴은 국가에 의한 박해 논리까지도 수용했다. 국가 권력이 분파들을 박해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변호할 때,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을 사용하여 위정자를 지지했던 것인데,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지배자들은 선한 일

25) Augustine, *Ep. 93, 6, 20.*

26) Augustine, *Ep. 100, 1, 1.*

27) Augustine, *Reply to Faustus the Manichaean, 22, 75*

28) Augustine, *Nature of Good, Against the Manichaeans, 32.*

29) Augustine, *On the Psalms, 104, 37.*

30) Augustine, *On Christian Doctrine, 4, 20, 40.*

31) Augustine, *On the Catechising of the Uninstructed, 21, 37.*

들에 대해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사상에 의하면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대사들이며, 따라서 만약 누군가가 악을 행했다면, 그는 악행자에게 내려지는 진노를 두려워해야만 했다. 따라서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러므로 모든 질문들은 교회 분열이 악한 일인지 아닌지, 당신들이 분열을 일으켰는지 아닌지, 그래서 당신들이 권력에 저항하는 것이 선한 동기를 갖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일인지의 문제이며, 그것에 의해서 당신들이 당신들 자신에게 심판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sup>32)</sup>

어거스틴에 의하면 국가의 지배자는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혗되게 검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분리주의자들에 대해서는 공적인 재판을 통해서 어떠한 처벌도 시행하게 될 것이다.<sup>33)</sup>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심지어 비록 분열주의자들이 악을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렇게 큰 분열이라는 신성모독죄”를 범했기 때문에 “책망받을 것”이라고 까지 주장했던 것이다.<sup>34)</sup>

## 3) 불의한 권력에 대한 불복종

어거스틴이 위정자에 대한 복종을 강조했다면, 그는 국가 지배자들이 정의롭던 불의하던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그들에게 복종해야만 한다고 주장한 것 이었을까? 어거스틴 자신이 이렇게 묻고 있다. “만약 당신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스스로가 다음과 같이 선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32) Augustine, *Ep. 87,7,7. CSEL 34,2, p. 403.* “tota igitur quaestio est, utrum nihil malum sit schisma aut utrum schisma non feceritis, ut pro bono opere potestatis resistatis, non pro malo, unde nobis adquiratis iudicium.”

33) Augustine, *The Letters of Petilian, the Donatist, 2, 20, 45.*

34) Augustine, *The Letters of Petilian, The Donatist, 2, 84, 184.*

“어떻게 해서든지, 최고의 권위자(주: 하나님을 말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국가 권력을 무시하라. 인간의 권위들에 대해서 이런 몇가지 단계들을 고려하라. 만약 위정자가 무엇인가를 명령했을 때, 그것이 실행되지 말아야 할 것인가?”<sup>35)</sup>

이런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권력의 단계들”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복종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 4) 하나님 유일 권위에 대한 점진적 강조

마지막으로, 어거스틴이 로마서 13:1-7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연대기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체계적으로 주석을 저술하려고 목적했다기 보다는,<sup>36)</sup> 급변하는 후기 로마제국 시대의 교회의 주교로서 전 생애동안 다양한 목회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신학적 해결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그의 사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sup>37)</sup> 그러므로 어거스틴이 그의 작품들에서 로마서 13:1-7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연대기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sup>38)</sup>

35) Augustine, *Sermons on New-Testament Lessons*, 12.13. PL 38. pp. 420-421. “Sed quid, si illud jubeat, quod non debes facere? Hic sane contemne potestatem, timendo potestatem. Ipsos humanarum rerum gradus adverte. Si aliquid jusserit curator, nonne faciendum est?”

36) H. Chadwick, *Augustin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6/1996), p. 106.

37) Augustine, *Retractationes*, prologue 3. “... 내 작품들을 기록된 순서대로 읽는 사람들은, 내가 그 책들을 저술하면서 어떻게 사상적 발전을 가져왔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FC, LX, 5). 어거스틴의 사상이 후기로 갈수록 점차 심화되었다는 강조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하라. 안인섭, “어거스틴의 교회와 국가에 대한 사상의 발전: 다니엘 2:31-45 해석을 중심으로,” 역사신학 논총(한국 복음주의 역사신학회) 제6집, pp. 139-156. (2003). ; Cranz, F.E., “The Development of Augustine's Ideas on Society Before the Donatist Controversy,” *Harvard Theological Review* vol. 47 (1954) pp. 255-316. Reprinted in *Augustin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ed.) R.A. Markus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72) pp. 336-403. ; J.P. Burns, *The Development of Augustine's Doctrine of Operative Grace* (Paris: Etudes Augustiniennes, 1980)

\* 395년 이전

1) *Sermons on New Testament Lessons*. 12.13.<sup>39)</sup>

\* 396년~405년

2) *On Continence*. 11.<sup>40)</sup> (395년~96년 혹은 418년~20년)

3) *On Christian Doctrine*. 4.20.40.<sup>41)</sup> (396년~426년)

4) *Reply to Faustus the Manichaean*. 22.75.<sup>42)</sup> (397년/98년)

5) *Nature of Good, Against the Manichaeans*. 32.<sup>43)</sup> (399년)<sup>44)</sup>

6) *The Letters of Petilian, The Donatist*. 2.20.45.<sup>45)</sup> (401년/05년)

7) *The Letters of Petilian, The Donatist*. 2.31.70.<sup>46)</sup> (401년/05년)

8) *The Letters of Petilian, The Donatist*. 2.83.184.<sup>47)</sup> (401년/05년)

9) *Letter 87.7.7.*<sup>48)</sup> (405년)

10) *On the Catechizing of the Uninstructed*. 21.37.<sup>49)</sup> (406년)

\* 406년 이후

11) *Letter 93.6.20.*<sup>50)</sup> (407년/408년)

38) 본 논문에서 사용된 어거스틴의 작품들의 연대는 다음의 책들에서 참조되었다. P. Brown, *Augustine of Hippo*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2000). A.D. Fitzgerald, *Augustine through the Ages*,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9).

39) PL 38. pp. 420-421. (=Sermon 62).

40) CSEL 41. pp. 152-154.

41) CCL 32. pp. 146-147.

42) CSEL 25.1. pp. 673-674.

43) CSEL 25.2. pp. 870-871.

44) Cf. S. Doepp and W. Geerlings (eds.), *Dictionary of Early Christian Literature* (New York: The Crossroad Publishing Company, 1998). p. 68.

45) CSEL 52. pp. 45-46.

46) CSEL 52. p. 60.

47) CSEL 52. pp. 112-115.

48) CSEL 34.2. pp. 402-403.

49) CCL 46. pp. 161-162.

- 12) Letter 100.1.1.<sup>51)</sup> (408년/409년)
- 13) On the Gospel of St. John. 5.12.<sup>52)</sup> (407년~408년/ 416년~17년)
- 14) On the Gospel of St. John. 105.2.<sup>53)</sup> (407년~408년. 414년/ 416년~17년)
- 15) On the Gospel of St. John. 116.5.<sup>54)</sup> (407년~408년. 414년/16년~17년)
- 16) On the Spirit and the Letter. 54.<sup>55)</sup> (412년)
- 17) The Retractations. 1.12.8.<sup>56)</sup> (426년/27년)
- 18) Letter 220.4.<sup>57)</sup> (428년)

\* 아래의 작품들은 연대가 불명확하다.

- 19) On the Psalms. 104.37.<sup>58)</sup>
- 20) On the Psalms. 119.159.<sup>59)</sup>

위의 연대기적 분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진술할 수 있다. 어거스틴은 406년 이후에 로마서 12:1-7을 인용할 때, 국가에 대한 복종에 대해서는 이전 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보였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유일한 권위를 보다 강조했다.<sup>60)</sup>

50) CSEL 34.2, pp. 464-467.

51) CSEL 34.2, pp. 535-537.

52) CCL 36, pp. 176-177.

53) CCL 36, p. 604.

54) CCL 36, pp. 648-649.

55) CSEL 60, pp. 210-212.

56) CSEL 36, p. 63.

57) CSEL 57, pp. 433-434.

58) PL 37, pp. 1335-1390.

59) PL 37, pp. 1501-1596.

60) Augustine, *Ep. 93. 6, 20; Ep. 100. 1, 1; On the Gospel of St John 116. 5; On the Spirit and the Letter. 220. 4; The Retractations 1.12.8.* 등.

## 2. 칼빈의 로마서 13:1-7 해석

### 1) 초판 (1540년)

1539년 10월에 기록된 헌정사를 가지고 있는 칼빈의 로마서 주석의 초판은, 1540년에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출판되었다. 칼빈 자신이 성경의 가장 숨은 보배로 이끌어 준다고<sup>61)</sup> 극찬했던 로마서 주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칼빈의 교회와 국가 사상을 추출할 수 있다.

#### ① 위정자의 권위

칼빈에 의하면 위정자의 권위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다.<sup>62)</sup> 가장 초기부터 칼빈은 정치적인 권력을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수용했다. 그의 로마서 13장의 주석에서, 칼빈은 모든 지상의 권리들이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의 왕국은 최고가 될 수 없다고 가르쳤던 급진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했다.<sup>63)</sup> 칼빈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복종의 굴레를 떨어버리지 않고서는, 기독교의 자유를 향유할 수 없을 것이다.<sup>64)</sup> 그러나 칼빈으로서는, 정부의 권위 자체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 권위는 저항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점에서 칼빈은 일반 사람들 보다 더 높은 권위를 위정자들에게 부여했다. 그렇지만, 칼빈은 또한 어떤 정치적 지도자도 최고의 권위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sup>65)</sup> 그러므로, 그의 주해에서, 칼빈은 궁극적인 권위는 왕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61) Calvin, CO 49, p. 1.

62) Calvin, *Commentary on the Romans*, 13:1. D.C. Steinmetz, "Calvin and the Patristic Exegesis of Paul," in *The Bible in the Sixteenth Century*, (ed.) D.C. Steinmetz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90), pp. 100-118. D.C. Steinmetz, *Calvin in Context* (New York/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p. 199-208.

63) Calvin, *Commentary on the Romans*, 13:1.

64) Calvin, *Commentary on the Romans*, 13:1.

65) Calvin, *Commentary on the Romans*, 13:1.

## ② 위정자의 책임

칼빈에게 있어서 위정자들은 선한 사람들의 평화로운 삶을 보호해야만 하며, 악한 자들의 악을 제어해야만 했다.<sup>66)</sup> 칼빈은 이처럼 위정자들의 소명감을 일깨우면서, 그것은 인간이 파멸로부터 보호될 수 있기 위한 처방책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칼빈은 만약 정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공적 적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sup>67)</sup> 이런 맥락에서, 칼빈은 심지어 폭군이라 하더라도 인간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울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sup>68)</sup> 따라서 칼빈은 사회에서 선한 사람들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바로 위정자들의 책임이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자들이 권력을 소유했을 때, 그것은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결국 칼빈은 위정자들의 이중의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으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 정치 지도자들은 인간을 향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결정들은 국민들의 삶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sup>69)</sup>

## ③ 복종과 저항

무엇보다도 칼빈은 위정자들은 복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위치는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된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sup>70)</sup> 그리스도인들은 위정자들에게 대해서 마치 하나님에게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 순종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sup>71)</sup> 이런 맥락에서, 칼빈은 권위에 저항하는 자들은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다.<sup>72)</sup> 그러므로 이 시기까지는 칼빈은 위정자

들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행동하는 한, 그들에게 저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 ④ 악행자에 대한 국가의 처벌

위의 진술들에 근거해서, 칼빈은 악인들이 선인들을 공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정자들이 칼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왜냐하면, 위정자들은 신적인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이다.<sup>73)</sup> 칼빈에 의하면, 국가의 지배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위임한 검으로 하나님의 노를 집행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칼빈을 따르면, 왕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검을 사용할 때, 자신들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칼빈이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악인들이라고 언급했을 때, 그는 국가의 정치적 질서에 도전하는 자들을 지칭했던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1540년까지는, 칼빈은 종교적인 혹은 교리적인 이슈에 대해서, 국가가 검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칼빈은 위정자들이 순수한 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검을 부여받았다고 보고 있지 않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비록 칼빈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부여된 검에 대해서 악한 자들을 처벌할 것을 동의한다고 하더라도,<sup>74)</sup> 그는 결코 이 처벌을 종교적인 의견들과 관련해서 언급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칼빈의 생애의 후반기에 기록되었던 그의 기독교 강요의 판본에 나타나 있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그의 태도를, 1540년의 로마서 주석 초판의 그것과 비교할 때, 바로 이점이 중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처럼, 칼빈이 하나님에 대한 위정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기록했던 1540년까지는, 그는 어떤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정당화없이, 악을 행한 자들을 처벌할 것에 동의했던 것이다.

66) Calvin, *Commentary on the Romans*, 13:3.

67) Calvin, *Commentary on the Romans*, 13:3.

68) Calvin, *Commentary on the Romans*, 13:3.

69) Calvin, *Commentary on the Romans*, 13:4.

70) Calvin, *Commentary on the Romans*, 13:1.

71) Calvin, *Commentary on the Romans*, 13:1, and 5.

72) Calvin, *Commentary on the Romans*, 13:2.

73) Calvin, *Commentary on the Romans*, 13:4.

74) Calvin, *Commentary on the Romans*, 13:4.

## 2) 제2판 (1551년)

칼빈은 제네바에 처음 체재할 때부터 그의 임종시까지 제네바 정치와 그 시민들에게 직, 간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자신의 로마서 주석 초판 이후 주석들을 지속해서 저술해 나가는 동안, 제네바의 정치에 보다 깊이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의 교회와 국가에 대한 사상은 그의 제네바에서의 정치적 위치와 관련시켜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칼빈의 지지자들이 제네바 선거에서 완승을 거둠으로 자신의 위상이 확고하게 된 1555년 이전과 이후가 주목해서 고찰되어야 한다.

### ① 위정자의 권위와 복종

1551년에 출판된 그의 로마서 주석의 제2판에서, 칼빈은 한편으로 초판에서 표명한 견해를 계속 견지해 나가고 있다. 그는 위정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다고 묘사하면서, 정부의 권리에 관해서 이전과 동일한 의견을 전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권리는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되었다.<sup>75)</sup>

그렇지만 칼빈이 정부의 권리에 대해서 새로 언급하기 이전에, 뉴앙스를 강화하는 문장들을 추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물론 폭군들과 권력의 불의한 집행은, 마치 그것들이 무질서 속에 가득 차 있는 것과 같이, 임명받은 정부가 아니지만;<sup>76)</sup>

칼빈은 폭군과 불의한 권력의 사용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 아니라 보았다. 이 진술은 위정자에 대한 복종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전보다 강조

75) Calvin, *Commentary on the Romans*, 13:1. “ipsum tamen ius imperii, in humani generic slautem a Deo ordinatum est”

76) Calvin, *Commentary on the Romans*, 13:1.

된 견해이며, 1540년의 초판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개념이다. 1551년 무렵의 칼빈은, 불의한 국가 지배자들의 신적 권위를 부정함으로, 그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신학적 가능성을 열어놓았던 것이다.

한편 칼빈은 그의 로마서 주석 2판의 13장 9절부터 율법의 의도를 참가해서 설명하고 있다. 칼빈에 의하면, 모든 율법의 중요성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따라서 평화와 형제 사랑을 고취하기 위해서 지배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77)</sup> 위정자들에 대한 복종과 이 세상에서의 평화로운 삶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1540년과 비교해 볼 때, 칼빈은 이전과 유사한 의견을 견지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 ② 위정자의 임무

칼빈은 로마서 주석 초판의 13장에 한 개의 문단을 참언하면서, 정치인들의 과제에 대한 그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13장 10절에 참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렇지만, 이것은 현재 의도하고 있는 것에 적용이 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위정자들은 평화와 정의의 수호자들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사람들이 해를 받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자는, 가능한 한 위정자들의 권력을 변호해야만 한다. 그러나 정부의 적들은 해를 끼치는 성향을 보여준다.<sup>78)</sup>

77) Calvin, *Commentary on the Romans*, 13:9. “Et tamen Lector non contentiosus facile agnoscet, Paulum ex similibus probare voluisse, huc tendere totam Legem, ut mutua inter nos colatur charitas. Hoc vero subaudiendum esse quod tacitum reliquit, non ultimam fovendae pacis et fraterni amoris conservandi partem esse, obedientiam erga magistratus.”

78) Calvin, *Commentary on the Romans*, 13:10. “Porro hoc ad praesens institutum accommodari decet. Nam quum magistratus, pacis et acquitatis sint praesides, qui suum cuique ius salvum esse cupit, et omnes ab iniuria tutos vivere, is ordinem magistratum quantum in se erit tuebitur. Politiae vero hostes, nocendi libidinem produnt.”

이 새로운 문단은 1551년판에 나타나고 있는데, 10절에 대한 칼빈의 첨가된 설명에 의하면, 위정자들은 사회 속에서 평화와 정의의 보호자들이다. 위정자들의 권력은 자유의 보존을 위해서 백성들에 대해서 보호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칼빈의 견해를 따르면, 권위에 해를 끼치려고 결심했던 자들은 정부의 적이다.

### 3) 제3판 (1556년)

제네바에 대한 칼빈의 영향력은 1555년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급성장했다. 따라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칼빈의 로마서 주석 초판 (1540년)과 2판(1551년)을, 1555년 이후에 증보된 3판(1556년)과 비교해서 연구할 때 매우 유용하다. 칼빈이 로마서 13장을 주석할 때, 그의 다양한 판들에서, 특히 가장 최후의 판인 1556년판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개정했는지를 고찰할 때, 그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 사상의 연속성과 비연속성, 그리고 심화되고 강화된 점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① 국가와 위정자의 권리

첫째로, 칼빈은 자신의 로마서 1장 1절 주석에서, 국가의 권리와 권위에 대해서 자신의 이전의 사고들을 견지하고 있다. 다음에 추가된 새 문단은 13장 1절에 대한 칼빈의 1556년판 주석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쟁을 방지하고 다른 악에 처방을 추구하는 것이 합법적이 듯이, 그 사도는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꺼이 위정자들의 권리와 권위를, 인류를 위해서 유용한 것으로 대하고 존경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악에 대해서 부과하는 처벌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신께서 적법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정해 놓으신 수단이다.<sup>79)</sup>

칼빈에 의하면, 전쟁과 악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군주의 지배권을 존중해야만 한다. 그는 위정자의 권리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하나

님에 의해서 인정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 위정자들의 권위에 대한 그의 후기의 견해는 초기의 사상과 연속성을 갖는다.

둘째로 칼빈은 세금의 사용을 요약하면서 6절에서 새 문장들을 첨언하고 있다.

우리는 바울이 정하는 조세의 용도가, 국왕들이 그들의 신하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해 준다는 데에 있다는 것을 보게된다.<sup>80)</sup>

세금의 사용에 관해서, 칼빈은 1540에 이미 그의 로마서 주석 초판의 6절 해설에서 자신의 견해를 주장했었다. 칼빈은 관원들은 세금에 의해서 후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평화를 지키고 보존하며, 악한 자들에게 대항하는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칼빈에 의하면 왕들은 그들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금을 받았으며, 정치적인 지배자들은 세금을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않된다.

위에서 주어진 두가지 사항을 통해서 볼때, 칼빈은 1540년에서 1555년까지, 교회와 국가에 대한 그의 일관성 있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아래의 세 가지 점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그의 보다 심화되고 강화된 입장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

#### ② 하나님의 세상 지배의 대리자

로마서 13장 1절의 해석에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세우신 이유

79) Calvin, *Commentary on the Romans*, 13:1. "Itaque quum et bella arcere, et caeteris noxiis remedia quaerere liceat, Apostolus magistratum ius et imperium tanquam humano generi utile, sponte et libenter a nobis suspici et coli iubet. Quas enim Deus infligit poenas hominum peccatis, non proprie ordinationes vocabimus, sed quae consulto media statuit ad legitimum ordinem servandum."

80) Calvin, *Commentary on the Romans*, 13:6. "Videmus enim in quos usus destinet Paulus quae penduntur tributa, nempe ut ad suorum defensionem praesidio instructi sint Reges.

와 정치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복종을 설명하는 문맥에서, 매우 짧은 한 구절을 제 3판에 추가했다. 아래의 강조된 단어가 그것이다.

우리가 위정자들에게 굴복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정하심에 의해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라면, 그(위정자)의 권력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질서를 전복하려고 시도하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저항하는 자이다. 왜냐하면, 정치적 권리의 창설자 되시는 분의 섭리를 무시하는 것은, 그분과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81)</sup>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배하시기 위해서 위정자들을 세우셨다. 칼빈에 의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이며, 따라서 백성들은 그들의 위정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세속적인 정치권력의 직접적 창시자가 되신 것이다. 칼빈은 이처럼 정치적인 권위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권을 부여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이곳이 국가 권력의 기초를 하나님에게 두었던 그의 이전의 원칙론적인 입장보다 한층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악행자에 대한 강경 처벌

로마서 12장 4절의 해석에서 칼빈은 악을 행한자에 대해서 검을 사용하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그의 초판에서도, 칼빈은 군주들은 검을 사용해서 개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 이 경우 칼빈의 의도는 악한 자들이 해를 끼칠 경우에 대해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칼빈의 강조점은 그들의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위정자들의 책임감이었다.<sup>82)</sup>

그렇지만, 1556년에 나온 그의 로마서 주석 제 3판에서는, 칼빈은 그의 이

81) Calvin, *Commentary on the Romans*, 13:1. "qui iuris politici author est"

82) Calvin, *Commentary on the Romans*, 13:4.

전의 설명보다 한층 강화된 강조점을 보여주는 한 문장을 부가하고 있다.

… 그(바울)는 위정자들이 칼로 무장된 것을, 단지 쓸데없이 보여주고자 함이 아니라 행악자들을 후려치기 위해서라는 점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sup>83)</sup>

"행악자들을 후려친다"는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1556년 무렵의 칼빈의 사상은 한 단계 강화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칼빈의 강조점은 국민의 평화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보다도, 악행자에 대해서 검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정당화하는 부분에 놓여있다. 위정자들이 검으로 무장하는 것은 단지 전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④ 위정자에 대한 복종에 종교적 의미 부여

마지막으로 칼빈의 발전된 점은 7절에 나오는 왕에 대한 백성들의 복종 부분과 관계있다. 칼빈에 의하면, 왕에 대한 백성들의 의무는, 존경과 복종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1556년에 칼빈이 왕에 대한 백성들의 복종을 언급하고 있을 때, 그는 이전에는 없었던 강조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문단은 내가 앞서 설명했던 바를 확증하고 있다. 즉, 우리가 왕들과 다른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만 한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간에, 우리들이 강요를 받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순종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자발적인 존경에 의해서 영예를 받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sup>84)</sup>

83) Calvin, *Commentary on the Romans*, 13:4. "Nam gladio armatos diserte pronuntiat, non ad inanem modo speciem, sed quo maleficos feriant."

84) Calvin, *Commentary on the Romans*, 13:7. "Confirmat autem hic locus quod prius dixit, parendum esse Regibus et quibuslibet praefectis, non quia cogimur, sed quia Deo gratum est obsequium. Non enim modo timeri vult, sed voluntaria quoque observantia coli."

칼빈에 의하면, 백성들이 위정자에게 복종할 때, 그것은 단순히 강요에 의해서 실천되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지는 종교적인 봉사의 영역이 된다.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의 정치적인 지배자에게 순종하는 책임을, 종교적인 의무로 강화해서 해석했다. 1556년 무렵의 칼빈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종 그 자체에 있지 않았다. 정의로운 왕에 대한 복종의 타당성에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1556년에 나온 칼빈의 로마서 주석 3판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칼빈의 보다 성숙되고 심화된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V. 비교 및 맷는 글

이상과 같이 로마서 13장 1-7에 대한 어거스틴과 칼빈의 해석을 중심으로 그들의 교회와 국가 사상을 분석할 때 다음의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어거스틴과 칼빈의 성경 해석에서 드러나는 유사점이다.

첫째 어거스틴과 칼빈은 모두 국가의 권력과 위정자의 권위를 절대화 하지 않았고, 최고의 권위가 되는 하나님 밑에 귀속시켜 상대화 시켰다.

둘째 이 두 신학자에 의하면, 위정자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하기 때문에 그 권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복종되어야 한다.

셋째 어거스틴과 칼빈은 공히 불의한 권력에도 맹목적으로 복종할 것을 강변하지는 않았으며, 불의한 지배자에 대해서는 불복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런가 하면, 어거스틴과 칼빈의 로마서 13장 해석은 서로 몇 가지의 강조점의 차이를 드러내 준다.

첫째로 어거스틴과 칼빈은 그들의 교회와 국가 사상의 강조점이 강화되는 방향이 서로 상이했다.

어거스틴은 국가 권력에 높은 권위를 두었다가, 점차 하나님 유일 권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비교적 일관성 있는 발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칼빈의 경우, 국가의 권위와 위정자에 대한 복종과 악행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일면 연속성을 보여주면서도, 악행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을 점차

강화하는 등 국가의 소임을 점점 강조했다는 면이 주목된다.

둘째, 어거스틴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점차 국가의 종교적인 의미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그의 사상이 심화되어 나갔다. 이것은 기독교 국가였던 로마가 몰락해 가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직면해서, 점차 기독교와 로마, 즉 교회와 국가를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그의 사상이 강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칼빈의 경우는 어거스틴과는 반대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점차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사상이 발전되었다. 이 현상에는 16세기 종교개혁이라는 격동기에 독립을 쟁취한 개혁주의 도시국가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혁 교회를 세워나가야 했던 교회의 신학자인 칼빈의 역사적 책임이 반영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셋째로 국왕에게 복종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거스틴보다는 칼빈이 보다 복잡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태도와 관련하여 칼빈은 두 가지의 관점을 겸지하고 있다고 보인다. 제네바의 정치적인 상황의 긍정적인 전개는 칼빈을 고무했으며, 그에게 적극적인 한 관점을 제공했다. 그러나 칼빈의 조국 프랑스 자체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상황들은 그에게 또 다른 강조점을 갖도록 했을 것이다. 1539년과 1540년에, 프랑스의 왕인 프랑스와 1세가 내린 칙령으로, 프랑스 안에서 종교개혁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로 취급 받게 되었다. 그 뒤를 이었던 앙리 2세(1547-59) 아래에서는 종교개혁 진영의 신자들이 이교도로 정죄되어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았다.<sup>85)</sup> 이런 상황으로 인해, 칼빈의 로마서 주석의 이후의 판들(1550년대)은, 정의로운 왕에 대한 복종을 더욱 강조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어거스틴과 칼빈은 “교회의 신학자”요 “역사의 신학자”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로마서 13장 1-7절의 해석을 통해서 살펴볼 때, 어거스틴과 칼빈은 그들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던 시대가 직면하고 있었던 역사적 과제를 깊이 숙고하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으며, 그 과정에서 어거스틴과 칼빈 각각의 교회와 국가 사상의 방향과 강조점이 점차 심화되어 발전되어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

85) E. Cameron, *The European Reformation* (Oxford: Clarendon Press, 1991), pp. 287-88.